

2018
07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 · 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02 CONGRESS

제56회 종합학술대회 성료

06 ISSUE

보건복지부
감염관리 대책 발표

10 NEWS

임상혈액검사학회
설문조사 실시

12 INTERVIEW

동업동락
육근상 회원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시행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1. 최근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심장초음파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법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의료체계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본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번호 : 의료자원정책과-8183(2018. 6. 8)

○ 유권해석 내용 :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혈류의 상태, 혈류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서 “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업무”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임상병리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공간에서(입회)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금번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임상병리사가 관련 법률과 임상병리사 직무기술서에 근거하여 심장 및 뇌혈관등(뇌혈류, 경동맥)의 생리학적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최적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임을 재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초음파진단기취급’이라는 이유로 혈액학적 기능 검사인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업무까지 방사선사만 해야 한다는 방사선사협회의 억지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고 많은 회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협회는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7월 중 각 의료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장인호**

협회 공식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iOS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유주, 하성일 / 기자 서윤진
디자인 · 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제426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대광메디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 체외진단 전문기업 SD BIOSENSOR
- UNI-VERSITY를 넘어 NEW-VERSITY로 신한대학교

제56회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성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지난 6월 29~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성황리에 '제 56회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민원기 협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협회장, 충남대학교병원 손민국 진료처장과 진단검사의학과 구선희 교수가 축하를 위해 참석하였다.

협회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대표단과 연자를 초청하여 국내외 검사의학의 첨단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였고 임상병리사의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협회 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하는 세션을 마련하여 임상병리사가 당면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술대회 주제인 '임상병리사의 미래'와 관련된 검사 분야별 감염관리 정책과 가이드라인 연제 발표, 4차산업혁명 특강, 신·변종감염질환의 발현에 따른 임상병리 검사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의견 교류,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통한 외부정도관리 용어 강기가 진행되어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틀날에는 혈액, 수혈, 미생물, 임상화학, 면역, 조직세포, 검사정보 주제별 심화세션과 검진기관평가, 생리기능검사, 면허신고상담 등 중소병원원 근무 회원들의 위한 별도의 세션이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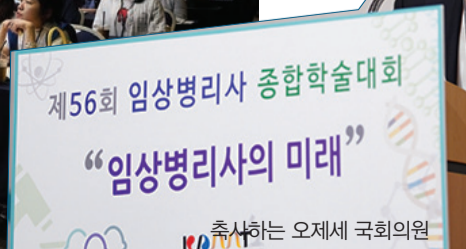
장인호 협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임상병리사의 전망과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탐구하고자 했다"며, "의료기관 규모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연구과제 결과발표를 통해 생리기능검사 분야 등 업권 수호 및 확대를 비롯하여 협회가 앞으로 최우선으로 진행할 정책사업에 대한 협회의 청사진을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제56회 임상병리사 학술대회는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 대전마케팅공사가 후원하였으며 차기 57회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은 2019년 8월 30, 31 양일간 지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축사하는 민원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장

(왼쪽부터) 장인호 협회장, 송치웅 대회장, 주진경 조직위원장



축사하는 오제세 국회의원

대회장 인사말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은 우리나라 첨단과학의 메카로서 최고의 석학들이 연구, 개발하는 연구단지가 있으며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임상병리사의 미래"와도 잘 어울리는 첨단과학도시입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시도회에서의 보수교육과 사이버 강의로 교육이수가 가능해지면서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회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회와 중앙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습니다. 최신의 검사 장비가 소개되는 전시부스와 종합학술대회의 명성에 걸맞은 참신하고 깊이 있는 주제별 학술 프로그램이 학술 정을 짝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날에는 중·소병원 회원을 위한 별도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타 업종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은 홍수처럼 밀려오고 이제 인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늘 공부하고 시대의 변화에 먼저 적응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먼저 보고 바다로 나아가면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지만 기다리고 서있다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말 것입니다.

학회장에서 많은 지식과 변화의 물결을 체험하시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임상병리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회장 송치웅

숫자로 보는 제56회 종합학술대회

3,461 사전등록자

176 현장등록자

대전의 지리적 이점 덕분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일부 세션에서는 강의실 자리가 부족하여 추가의 자리를 배치해야 할 정도였다. 감염관리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만큼, 협회에서는 양질의 온라인보수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도관리세션에서는 수탁기관인증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한 덕분에 회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점을 반영하여 추후 학술대회부터는 사전등록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강의 공간과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높은 참석율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대전컨벤션센터 직원들과 입점 업체인 대전의 명물 베이커리 성심당 직원들이 우리 협회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다는 후문이 있다.

24 외국인 등록자

협회와 MOU를 맺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대표단과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일본과는 한일교류공로자 시상 외에 학생교류도 이루어져 학생포럼에서 매년 2명의 학생을 선발, 서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만과는 매년 회원 2명을 선발하여 각 국가의 병원으로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우리 협회와의 색다른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제심포지엄은 이제 4번째를 맞아, 회원들이 학술교류는 물론, 영어 발표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국제심포지엄 외에도 좀더 많은 회원들이 해외학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회원 대상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별도의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170 초록 등록

119 포스터 등록

학술대회의 꽃은 각 분야별 회원들의 연구 성과다. 전시장에서는 회원들이 제출한 포스터전시세션이 운영되었다. 각 분과학회 별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15명의 회원이 포스터학술상에 선정되었고, 폐회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15 학생포럼 참가 대학

학생포럼에는 15개 대학에서 25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학생포럼 전에는 특강이 이루어졌는데, 2017년 협회 정책연구과제 중 <임상병리사 중장기 인력수급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를 건양대학교 양승주 교수가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학생포럼의 주제는 <동아리가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46 전시부스 참가 업체

15 초록 광고 업체

학술대회의 규모에 비해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고 후원해주었다. <임상병리사의 미래>라는 학술주제에 걸맞은 최신 기술이 반영된 장비를 전시되어 전시부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협회는 업체참여율을 높임으로써 회원들에게 양질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차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7회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홍보도 각 부스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제56회 종합학술대회 수상자들

자랑스러운 임상병리사상



학술공로상



학술공로상



협회장공로상



협회장학술상



우수논문상



▶성현호 (동남보건대학교)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720nm에서 망상적혈구 측정 경험

▶한민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우측 빛장밀이중혈류빠앗김증후군에서 이중초음파검사의 유용성

▶임성혁 (삼성서울병원)
편측성 안면경련 환자의 미세혈관 감압수술에서 효과적인 수술 중 신경계 감시검사를 위한 제안

▶표상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화학검사 결과의 검증을 위한 용혈 지수 일치화 도구 개발

▶성호중 (울지대학교)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의 혈액에서 심장사상충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기법 개발
※대리수상

▶정무상 (제주한라대학교)
대중음식점 일회용 물티슈의 세균 오염도 조사

▶이준범 (강남차병원)
최근 서울지역 종합병원에서 다양한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검출에 대한 실태조사
※대리수상

우수구연 학술상



▶박혜란(한국건강관리협회)
The Prevalence of Folate Deficiency in Korean Health Screening Subjects

▶양병선(진주보건대학교)

Polymerase Chain Reaction – Sequence Specific Primer를 이용한 HLA-B*5801 검출

▶임지애(한국건강관리협회)
Prevalence of Iron Deficiency Anemia (IDA) in Health Screening Subjects in Korean

▶서명석(서울대학교병원)
질병관리본부의 호흡기바이러스 통계정보에 대한 임상검사실에서의 적용

▶허재석(강남세브란스병원)
Analysis of Electrophysiological Results

▶이은선(삼성서울병원)
실신 환자에서 경두개 초음파 검사의 역할

우수포스터 학술상



▶지우현(삼성서울병원)
한국인의 위암 수술 후 림프절 획득의 최소기준치

▶강철수(동아대학교병원)
검사실 사건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모색

▶정철호(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
국내 혈소판수혈불응증 환자를 위한 HLA 적합 혈소판 혈액제제의 공급

▶강유미(분당서울대학교병원)
AU 5800 N-Acetyl Cysteine (NAC) 영향으로 인한 Beckman coulter 시약의 위음성 결과에 관한 증례 보고

▶김선희(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SPAplus® Automated Analyzer를 이용한 Free Light Chain 정량 분석 평가

▶신경아(신성대학교)
Visceral Adiposity Index as a Predictor of Metabolic Syndrome and Insulin Resistance among Korean Adults

▶김은선(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결핵균 약제감수성검사에 사용되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의 유용성 비교 연구

▶조선(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속한 보고를 위한 Carbapenem Resistance Enterobacteriaceae 감시 배양 비교평가

▶유희상(울지대학교)
KpOmpA Induces Oxidative Stress and Apoptosis in HEp2 Cells

▶김태중(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자진단기법을 이용한 Mycobacterium Tuberculosis 와 M. bovis Bacillus Calmette-Guérin 감별

▶박수진(씨젠의료재단)
Cold-Agglutination과 M. pneumoniae IgM 검사 간의 일치율과 PneumoBacter ACE Detection 검사와의 상관성

▶박상구(삼성서울병원)
The critical warning sign of real-time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during microvascular decompression for hemifacial spasm

▶성하정(서울대학교병원)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혈관성 인지장애에 미치는 영향

▶전승아(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유전구형적혈구중 선별검사법들의 비교

▶이은화(이원의료재단)
Real-time PCR법을 이용한 MTHFR검사의 유전자형 빈도

학생포럼



▶대상
서영대학교(지도교수 조영국/발표자 차혜원)
ABO 동아리 활동 "임상병리학과 비전 그 길을 찾다"

▶금상
세명대학교(지도교수 유성률/발표자 김단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DNS 액세서리

▶은상
순천향대학교(지도교수 류덕선/발표자 장혜원)
대내외 활동이 이루어 내는 변화

한일교류공로자상



한일교류공로자상이란?

우리 협회와 일본임상위생검사기사사회는 한일 양국 임상병리사회의 우호 친선과 교류 및 임상검사기술학의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 <한일교류공로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한일교류공로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한일교류공로자회 회의를 통해 차기 수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2019년 5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개최하는 68회 일본의학 검사학회 및 한국 측 수상자 양만길 명예회장과 일본측 수상자 요네사카 토모야키 회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감염관리활동 강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18~’22)」 발표

-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인력기준은 강화, 감염관리 수가 개선 -
-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확대, 중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확대 -
-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및 활동 강화 시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수립, 발표하였다.

○ 의료관련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 등이 자주 나타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공동팀장),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유관기관, 관련 학·협회, 전문가 등 34명

○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번 대책에 반영하였다.

* (설문 배포: 총 2,108개) 상급종합병원 전수(42개), 종합병원 전수(298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 갖춘 병원(272개), 요양병원 전수(1,496개)

* (응답: 총 1,442개) 상급종합병원(42개), 종합병원(260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 갖춘 병원(167개), 요양병원(973개)

■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①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②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③ 의료관련 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④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4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①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하여 이뤄지도록「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

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내용)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 외부인 출입 제한 및 보안규정, △감염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운영 원칙, △격리실 운영 규정, △병동 투약 공간 운영, △환경 관리 등

②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감염을 방지한다.

○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또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①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적 감염관리 활동을 의무화 한다.

*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담당인력지정) 의무화(개선) 차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②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한다.

○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론 위주 → 실습·사례 위주), 교육시간(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 △직종별, △의료기관별, △의료인의 업무 진입 단계별 교육 과정 세분화 추진

○ 또한,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여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③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 실태조사 현장조사(18) 결과, 특히 중소·요양병원의 매뉴얼 개발 요구가 높은 상황

- 더불어, 감염위험이 높은 영역별(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④ 지역 단위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 지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한다.

* 국립대병원 등에 권역 의료관련감염지원센터,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감염관리지원팀을 구성하여, 권역·지역 내 의료관련감염 중심병원으로서의 기능 부여

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병문안 준수사항,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3.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

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확대·개편한다.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한다.

- * (참여기관) 230개 (급성기병원) → 350개 (중소요양병원, 의원 포함)
- * (대상영역) 중환자실, 수술실 →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등 추가
- * (지표) 혈류·요로감염, 폐렴, 수술감염 → 손위생, 예방술기 등 추가

-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②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을 정비한다.

○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제재수단 간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다.

③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활성화한다.

○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하여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

○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 또한,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4.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

①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단체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 한다.

②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의료관련감염 사고 발생 시 시군구(보건소)-시도-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이 초기에는 대부분 ‘원인불명 질병’이므로 집단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대응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법 근거 및 매뉴얼을 정비한다.

■ 한편, 이번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18.2~3)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실·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개선,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

○ 조사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67%가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 보유 의료기관

○ 병원·요양병원의 13~23%는 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60~70%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감염관리활동도 미흡한 상황이다.

○ 또한, 현장조사 결과 멸균을 완료한 의료물품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보관하거나, 주사 준비 공간에 화분이 다수 비치된 사례, 병동의 냉장고에 약품과 음식물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등 부적절한 감염관리 사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하여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의료관련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 그동안에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등 다른 대책의 일부에 포함되어 추진

- 이번 종합대책은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최초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논의 과정에서 정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관련 학·협회, 전문가 등 의료관련감염과 관련된 각계 인사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 TF의 4개 대책반(①감시체계 및 인력 역량강화, ②감염관리 활동 지원 보강, ③감염 취약시설 관리강화, ④감염관리 기반 강화)별 과제 발굴

* 그 밖에 정부 유관부서 등 논의과정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법체계 정비 등 거버넌스 강화, 감염관리 준수사항 관련 제재 규정 정비 등 과제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침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관련감염 개요

Q 의료관련감염이란 무엇인가요?

- A •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으로, 내원 당시에는 없었던 감염이 입원이나 진료·치료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증상의 발현시기는 원인 병원균의 잠복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입원·치료 48시간 이후, 퇴원 후 14일 이내, 수술과 관련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발생합니다.

Q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

- A • 의료관련감염은 환자의 낮은 면역력, 침습적 시술·의료기구 사용·의약품 투여 과정 중 부적절한 감염관리, 입원·치료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 (환자요인) 낮은 면역력(신생아, 고령자, 수술환자 등), 침습적 시술 및 기구 사용 등
- (진료·치료과정) 불충분한 손위생 등 감염관리 미흡,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과실, 의약품·의료기기의 보관·사용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리 등
- (의료환경) 감염 발생·전파에 용이한 의료기관의 시설·구조, 부적절한 환경 소독, 다른 환자 또는 외부 방문객에 의한 감염 등

Q 의료관련감염의 원인균은 무엇인가요?

- A • 원칙적으로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의료관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전파되는 의료관련감염의 특성상 병원 내 상주하는 세균 또는 진료·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감염환자에 의한 감염이 많습니다.

* 항생제 내성균, B·C형 간염바이러스,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Q 의료관련감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A • 의료관련감염은 인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이 가능하나, 대체로 혈류감염(패혈증), 요로감염, 폐렴 및 수술부위감염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그 이유는 정맥주사(혈류감염), 도뇨관(요로감염), 인공호흡기(폐렴)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침습적 의료기구 및 수술·시술로 인해 감염이 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항생제 치료로 완치 가능한 경우에서부터 패혈증·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Q 국내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은?

- A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중환병실 및 200병상 이상 병원 193개소)에서 연간 3,989건*의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7)

* 혈류감염 1,757건(44.0%), 요로감염 1,241건(31.1%), 폐렴 951건(23.8%)

- 최근 10여년간 의료관련감염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혈류감염 및 대장수술 등 일부 수술관련감염 등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 의료기술 고도화로 침습적 시술 증가,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의료관련감염은 어떻게 예방·관리 할 수 있나요?

- A • 효과적인 국가정책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관리, 그리고 의료이용자의 적극적 협조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WHO, CDC등)
- 이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전략*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거버넌스구축,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와 프로그램, △감염관리인력확대, △감시체계운영, △시설·운영, △지침 및 교육훈련, △효과적 지원전략 등

협회 감염관리위원회 "전국 의료기관 감염감시검사 실시율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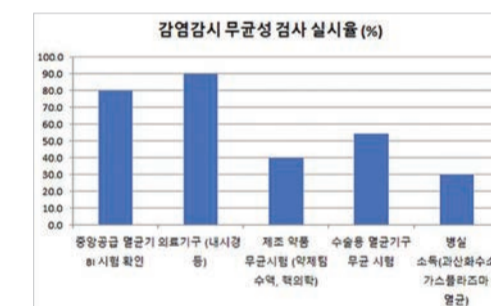
- **다제내성균 감시배양검사(active surveillance)** 69기관 중 44곳만 실시(63.8%), 정기 시행은 18.8%뿐, 나머지는 임의 실시 44.9%
- 주사제 등 제조약품 무균검사 **미실시율 60%**로 조사돼
- 강화된 정부 감염관리정책에도 **슈퍼박테리아(카바페뎀내성 장내세균)** 급속 전파, **감염감시 기능 미흡**
- 감염발생을 줄이는 감염관리는 병원체가 있을 만한 현장을 찾아내고 병원체를 제거하는 **사전 예방 조치로 전환해야**

○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 감염관리위원회(위원장 윤남섭)**는 "전국 의료기관 감염감시배양검사 실무자들의 감염관리 업무현황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발표하였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56회 종합학술대회, 대전컨벤션센터, 6월 29일~6월 30일). 일명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카바페뎀내성 장내세균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통계는 매년 발생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2018년 1월~5월 동안 4,784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병원마다 줄어 들지 않는 감염유형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검사 실태에 대하여 실무자에게 설문하였다. 임상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률은 29.0%, 97개 기관 이었다.

○ **발표에서** 주요내용은 법정 의료관련 감염병(6종의 다제내성균)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 방법으로 알려진 적극적인 감시배양검사(active surveillance)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18.8%로 매우 낮았는데, 중환병실 중에도 12%는 병원 사정상 미 실시하였고, 검사를 외부수탁기관에 의뢰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윤 위원장은 보통 결과를 받아보는데 10여일 소요되므로 환자 격리가 지연되는데, 주변환자와 접촉하면서 내성균이 확산되거나, 또는 보건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한다면 더 많은 환자에게 감염을 전파시키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설문하지 않은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들 기관이 미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실태조사에서** 일상적인 환경배양검사 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적용되는 각종 기구, 제조된 약품 등이 환자에게 사용되기 전에 무균상태임을 증명하는 무균성 검사는 매일 또는 매주 시행한다는 기관이 34.6%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주사제 등 제조약품 무균검사는 40%로 낮았다. 환경감시배양 검사는 50%의 기관에서 유행병원체가 발생할 경우에만 실시하고 나머지 50% 기관은 미수행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윤 위원장은 현재의 실태조사에서도 무균상태를 검증하는 검사 시행률이 저조한데, 정부가 2018년 10월부터 150병상 이상 감염관리실을 설치한다는 규정을 적용해도 오염원 인자- 소멸시키는 절차에 대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고집였다.



○ **각 의료기관은** 감염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시배양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다제내성균 감시배양검사, 무균성 검사, 오염도 검사의 시행횟수, 적정 기준 등 정부의 지침이나 병원평가문항도 없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써서 감염관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도 미흡하였다. 그러나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은 감시배양검사 실무 인력이

부족하고 적자를 감수하며 정기적인 환경감시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 **검사 실무자들은** 감시배양 검사업무는 수작업에 의해 많은 시간과 노동이 소요되는 검사이지만, 검사인력은 81.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병원체를 찾아내는 근거중심의 감염관리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이다. 감염발생을 줄이는 감염관리는 병원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된 검사경험이 있는 임상병리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감염관리 활동은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약사 등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의 협력으로 현장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 **윤남섭 위원장은** "병원내 슈퍼박테리아 집단 감염 발생이라는 부끄러운 뉴스가 반복되는 것은 현 감염관리 프로그램이 감염발생 시 추적검사, 환자격리, 교육 등 사후조치 위주의 감염관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감시배양검사의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감염발생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내 병원체 오염을 사전에 탐지하는 감시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사전 예방조치로 감염원점을 제거함으로써, 감염발생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강화된 정부 감염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슈퍼박테리아(카바페뎀내성 장내세균)가 급속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의료관련 감염관리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다제내성균에 대한 감시배양검사, 환경배양검사 등 병원체 감시기능이 총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서 검사수가 신설과 더불어 감염관리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배치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도분과소식

임상혈액검사학회 설문조사 실시 중



임상혈액검사학회 설문조사 QR코드
네이버 앱상단의 스마트 카메라로 촬영시 접속가능

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최미옥)에서는 회원님들의 학술적 발전과 지식정보 교류를 위해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관심사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오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추후 보수교육의 준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드립니다.

설문참여방법:

1. 검색창에 **bit.ly/혈액검사** 입력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구글 Chrome등 다른 브라우저 이용)
2. QR 코드 검색

임상검사정보학회, 평의원대회 개최

● 명예기자 송현근



임상검사정보학회(학회장 김대은)는 5월 26일 올림픽 파크호텔 베이징홀에서 임상검사정보학회 1차 평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평의원대회에는 최광모 전임회장을 비롯한 평의원들이 참석하여 학회 발전방향과 주계학술대회 준비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서울시회, 한마음단합대회 개최

● 명예기자 설승환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이재진)는 5월 22일 국회관리용 축구장에서 회원들의 친선 교류 및 단합 신장을 위해 '2018년도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으며, 750여명의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에서는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한 서울시회 이재진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장인호 협

회장이 감사의 말을 전하였으며 회원들에게 협회 현안을 전달했다.

종목은 배구, 족구, 피구, 단체줄넘기, 5인 6각, 지구는 만원, o/x 퀴즈, 단체 레크레이션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들과 함께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별도로 어린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했다. 또한 참석한 회원과 가족들 전원에게 점심과 음료를 제공하였으며 수건을 기념품으로 제공하였다.볼꽃 튀는 신경전과 더불어 각 분회 별 협동심과 동료애를 그대로 보여준 응원전도 뜨거웠다. 각 게임별로 점수를 부여하였고, 모든 게임 점수를 합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상금을 부상으로 제공하였다.

폐회식 이후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도 진행되어 끝까지 자리를 지킨 회원들에게 많은 경품이 돌아갔다. 이재진 회장은 한마음단합대회는 서울시회 회원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 고취와 분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행사인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1등 세브란스병원(한경희 분회장), 2등 서울대학교병원(노경운 분회장)
- 3등 가톨릭대학교병원(임성재 분회장)
- 4등 씨젠의료재단(홍창식 분회장)
- 5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임현미 분회장)
- 참가상: 고려대학교병원, 적십자혈액원, 강남세브란스 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 중소병의원

서울시회, ASCPi 15기(MLS) 과정 개강

● 명예기자 설승환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이재진)는 5월 29일 서울시회 2층 강의실에서 ASCPi 15기(MLS) 개강식을 가



졌다. 2018년 5월 29일(화)부터 9월 21일(금)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27회, 총 81시간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수강생은 40여명이다.

이재진 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15기 교육까지 봉사해 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ASCPi 15기 교육은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실무에 접목한 국제적 자격을 취득하는 ASCPi 시험대비 과정으로 현업에 계시는 새로운 강사진을 추가하는 등 강사진이 다소 변화가 있으며, 앞으로 4개월 여간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교육생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조경진 교수가 ASCPi MLS 시험 응시 자격 및 요령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조윤경 강사의 혈액학(Hematology) 강의로 첫 수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서울시회 2018년 보수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교육명	일시	장소
제6차 중소병의원학술제	10월 27일(토) 15시~19시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
제4차 보수교육	12월 15일(토) 15시~19시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

대구시회, 보건의 날 봉사활동 실시

● 명예기자 이효권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유헤림)는 5월 19일 대구 시내의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당신의 혈액형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구시민 혈액형 찾아주기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매년 보건의 날을 맞아 실시된 봉사활동은 유헤림 대구시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의 어른신들과 가족단위로 놀러 나온 시민, 연인들을 대상으로 혈액형검사와 혈당검사, 혈압체크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한쪽에 서는 간단한 다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액에 관한 O/X 골든

전북도회, 임원 및 분회장 수련회 실시

● 명예기자 손주영



한편, 5월 12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춘계보수교육을 개최하였다. 약 480여명의 광주 시회 회원들과 대만의 뉴타이페이지회 회원 1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보수교육 학술 교류상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승이 회원이 수상하였고 자동으로 2019년 대만 학회 참석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 밖에도 광주시회는 2017년도부터 정회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임하는 회원에게 협회모고(KAMT) 모양의 금배지(현금 15만원 상당)를 수여하고 있는 바, 전남대학교병원 정성두, 전호근, 박현숙,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이형기, 광주보훈병원 박민수, 김운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강완석, 정완섭, 이건훈 회원에게 금배지를 증정하였다.

지난 제425호 병리협보 10면 인터뷰기사 3번째 답변에서 대전보건대학교를 '대구보건대학교'로 정정합니다.

광주시회, 회원들을 위한 영화관람 행사 개최

● 명예기자 김영훈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기원진)는 6월 14일 광주에 위치한 충장로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광주시회 회원들을 위한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집행부에서는 김밥 및 간단한 음료를 함께 제공하여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기원진 회장은 "보수교육은 물론이고 회원단합행사도 다채롭게 마련하여 시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원동정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은경 회원(소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은경 회원이 「6.14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헌혈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한혈문화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혜연 회원(소속 전북대학교병원),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상 수상

이혜연 회원은 5월 19일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제58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Estradiol 검사시 방사성 추적자의 희석시간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우수 학술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Estradiol 여성 호르몬 검사 시 방사성 추적자와 완충액 희석 시 희석시간에 따른 결과값을 비교해 적절한 희석시간을 제시한 점이 심사자들 사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장호 회원(소속 청주의료원), 정년퇴임

▶정대남, 김태준, 김유정, 한영선 회원(소속 청주의료원), 입사

▶이은제 회원(소속 강원대학교병원), 2018년 7월 21일 11시 디아펠리에서 결혼

www.choongil.com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CHEMISTRY	DxC 8801,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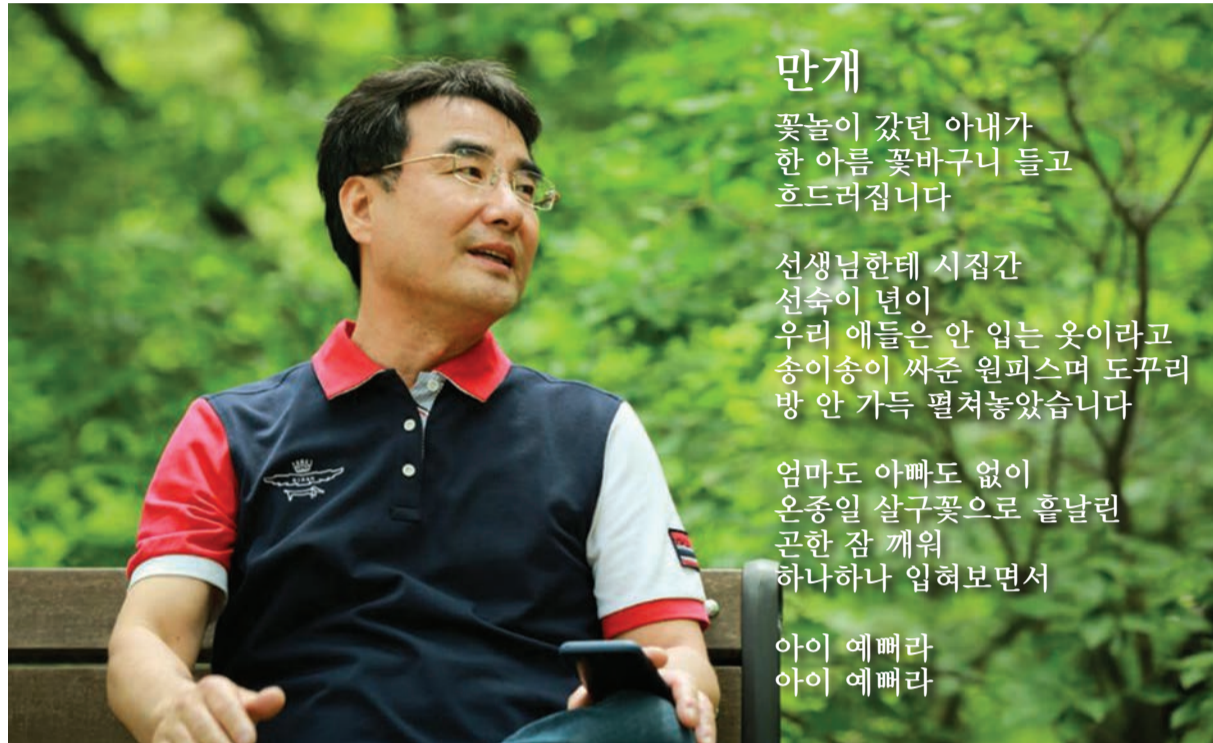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同(동)業(업)同(동)樂(락)]

시(詩)를 통해 삶을 읽다

‘절창’과 ‘만개’ 그리고 ‘우술필담’을 앞에 두고



만개

꽃놀이 갔던 아내가
한 아름 꽃바구니 들고
흐드러집니다

선생님한테 시집간
심숙이 넋이
우리 애들은 안 입는 옷이라고
송이송이 싸준 원피스며 도꾸리
방 안 가득 펼쳐놓았습니다

엄마도 아파도 없이
온종일 살구꽃으로 흠날린
곤한 잠 깨워
하나하나 입혀보면서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뇌신경센터 육근상 회원

※ 육근상 회원이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점심시간에 병원 앞 테미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떠오른 시상이 담긴 시, 시집 《만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산업 활성화와 국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자서에서 “살아내는 동안 큰 슬픔과 왜곡, 그리고 분노가 있었다. 시(詩)라도 있었으니 망정이지 내가 무슨 재주로 이 허망한 세월 견디어낼 수 있었겠나. 주목 받지 못한 사소한 것들에 ‘만개’라 말 걸고 이름 붙여 보듬어 내보낸다”고 적었다.



지난 해 12월 패터슨(Paterson)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천국보다 낯선>을 연출한 짐 자무쉬 감독의 영화인데, 패터슨 시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주인공 패터슨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본인만의 비밀노트에 시로 표현합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패터슨 씨가 있습니다. 육근상 회원은 1991년 《삶의 문학》을 통해 등단하고 2013년 시집 《절창》, 2016년 《만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우술필담》의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KBS 1TV 문화산책에 출연하여 시인으로서의 삶과 작품세계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두에게 위로를 보낸다는 육근상 회원. 그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간단하게 선생님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3년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입사하여 현재는 뇌신경센터에서 근전도검사, 수면다원검사 등 생리기능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시를 짓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 문학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배고픈 직

업’이라며 부모님께서 진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셨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임상병리사와 시인으로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직업이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에는 시가 제 곁에 있어주었고,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작품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79년 원하던 진로에 대한 좌절과 땀 건설로 인해 고향 마을이 수몰되면서 꽤 기나긴 방황기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외로움과 소외감에 빠져서 대청호 주변을 떠돌았고 우연히 한국전쟁 실향민 거주지인 천개동을 알게 되어,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

고 쓰면서 본격적으로 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1991년 《삶의 문학》에 <천개동> 외 5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하였습니다.

Q. 선생님에게 ‘시 짓기’란?

치열한 삶 그 자체입니다. 제 첫 시집이 나오는 데 등단 후 22년이나 걸렸습니다. 1994년, 3년간의 노력으로 완성한 원고를 서울 연신내에 위치한 한 출판사에 건넸습니다. 시집이 나와야 할 기한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상경하였고 정신 없이 사무실 집기를 빼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분한 마음에 담벼락 뒤에 숨어서 출판사 사장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를 잡고 따져 물었더니 본인이 인쇄는 해주겠다고, 호연장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받아 든 제 첫 번째 시집은 전단지보다 형편없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인쇄된 시집을 모두 불태우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과 결과물에 낙담한 나머지 활동 자체에 대한 제 열정마저 꺾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활동하던 대전 지역 문단 선배들의 설득으로 2013년에 첫 시집 《절창》을 냈습니다.

절창

일흔 노인 소리를 듣는다
듬음에서는 관악기 소리가
나는 길가
하도 불어 속이 다 닳아버린
오죽의 숨구멍으로
잘 익은 통소 소리 난다
참, 처량하기도 하다
두우도우 가릉거러다
중모리로 간신히 넘어가는 저 노인 앓는 소리는
지금 애미고개 넘어가는 중이다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이어지다
끊어지는 중고제 낫익은 소리, 절창이다



Q. 언제 시상이 떠오르시는지, 언제 시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고 합니다만, 저는 거의 매 순간 시를 쓰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시를 고민하고 좋은 시상이나 문구가 생각이 나면 카카오톡을 이용해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독자만의 해석이 가능하게 열려있지만, 저는 저를 비롯한 가족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숲으로 보자면, 꼭 크고 아름다운 이름있는 나무들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없는 풀, 잡초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훌륭한 소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Q. 본인이 생각하시는 시 짓기의 장점

시를 쓰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자기정화, 자기반성, 자기위안 이 3가지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함과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좋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평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명예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러한 태도를 저버린다면, 곧 작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Q. 제일 좋아하는 시인과 시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백석 시인의 거침없고 치열한 삶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 그의 시를 좋아하고 즐겨 읽습니다. 지금 읽어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를 통해 용기와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 백석 -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면 짐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에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슬내 나는 흠과,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절물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썬며 제 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기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깎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팍 메어 울 적이며, 내 눈에 뜨라운 것이 펄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환곤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장을 바라보듯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찬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여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 머리 나뭇손에 찔랑찰랑 싸락눈이 와서 문장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껴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석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세에는, 찔랑찰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청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신한대학교 학점은행제 임상병리학 학사 학위 취득 신입생모집

- ▶ 우수한 접근성 - 망월사역(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 ▶ 장학혜택 - 다양한 장학혜택
- ▶ 역사성 - 45년의 역사와 전통



모집전공		
전공명	정원	지원자격
임상병리학전공	80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예정자)

- ▶ 모집기간: 1차 2018.6.25.(월) ~ 2018.07.12.(목), 2차 2018.7.13.(금) ~ 2018.08.15.(수)
 - ▶ 등록기간: 1차 2018.7.16.(월) ~ 2018.07.18.(수), 2차 2018.8.20.(월) ~ 2018.08.23.(목)
 - ▶ 납부방법: 개인별 가상계좌부여
 - ▶ 개강예정일: 2018.08.27.(월)
 - ▶ 전형방법: 선착순모집
 - ▶ 접수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 문의: 031)870-3814~5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life.shinhan.ac.kr> 참조

그 외 모집과정			
전공명	정원	전공명	정원
간호학전공	80	*사회복지학전공	40
방사선학전공	80	부동산학전공	40
치기공학전공	60	체육학전공	40
치위생학전공	48	사회복지현장실습	120
		보육실습	80
		평생교육실습	4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형광 면역 분석기

STANDARD F200 & Influenza A/B FIA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I(Cut off index) 제공- 정도관리 물질 제공- 기존 자사제품 대비 200배 이상 향상된 민감도	신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1.5분(90초) 이내 결과 출력 (최대 10분)
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HIS 연결-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3,000개의 데이터 저장 가능- Mucous filter 제공- Device 내 2D barcode를 통한 측정 항목 정보 자동 인식	추가 검사가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RSV Ag, HbA1c, CRP, PCT, U-Albumin

[F200 Analyzer]

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메디케어빌딩 C동 4층, 5층
공장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74
Tel +82-31-300-0400 | Fax +82-31-300-0499 | E-mail sales@sdbiosensor.com | Website www.sdbiosensor.com
SD Biosensor is not related to Alere Inc. or to Standard Diagnostics, Inc.

(주)대광메디텍 창립 30주년

지난 1988년 창립 이후,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대광메디텍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30년을 이어온 기업정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new Automatic Chemistry Analyzer DK-200



- ✓ 최소형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
- ✓ 최소의 유지비용
- ✓ 일반검사, 응급검사, 재검사를 위한 효율적인 장비
- ✓ 한글자막 선택으로 누구나 손쉽게 작동 가능
- ✓ 환자 성명을 한글성명으로 입력 가능
- ✓ 일반폐수와 시약폐수 분리 배출

Specification

- 측정속도 : 200T/Hour
- 큐벳 세척 : 7단계 자동 큐벳 세척 시스템
- 검체 용기 : 3mm SST 튜브 혹은 샘플컵 사용 가능
- 시약 트레이 : 최대 40개 장착 가능
- 시약 용량 : R1 150~300µl, R2 10~150µl
- Bar-code Reader : 장착 가능
- 시약 냉장 시스템 : 4°C ~ 8°C (전원 OFF시에도 시약 냉장 가능)
- 인터페이스 : LIS 인터페이스 지원
- 액상감지기능 : Sample, Reagent
- 검체 트레이 : 최대 40개 장착 가능
- 검체 용량 : 2~50µl
- 치수 : 41.5cm(W) x 56.5cm(L) x 38.5cm(H)

(주) 대광 메 디 텍
DAE KWANG MEDITECH CO.,LTD.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5길5(사당동) 대광빌딩
본사 | TEL. 02-533-3700 FAX. 02-534-2700
www.edkm.com

지사

광주지사 TEL. 010-9115-3721
대구지사 TEL. 010-8660-3719
대전지사 TEL. 010-9023-3720
부산지사 TEL. 010-9095-3718

지방대리점

대전/충청 (주)동성메디칼 042-254-5759
광주/전남 (주)태화메디칼 062-373-5321
전주/전북 (유)필메디칼 063-272-5580
대구/경북 네오메디텍 053-527-2892

진주/경남 (주)하이메디텍 055-745-7999
창원/경남 세진메디칼 055-231-9369
부산/경남 (주)다우메디칼 051-757-2279
부산/경남 태전메디칼(주) 051-529-2650

● 회원참여코너

2018년!

병리협보를 열독하는 당신을 위한 이벤트!

“ 병리협보에서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호 병리협보에 없었던 이미지를 찾아, 그 번호와 함께 가장 좋았던 기사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7분을 추천하여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기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접수기한 : ~ 2018년 7월 29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 이번 호 병리협보에 없었던 사진의 번호 :
 - 가장 좋았던 기사와 간단한 코멘트 :
 - 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 연락처 (상품권을 받으실 휴대전화번호)

[제425호 정답 및 당첨자] 2번

● **이혜경 회원:** 이슈 체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현 상태에서 의료 공공성과 재정도도 따져봐야 하고 수가 현실화도 안되어 있는 우리 현실도 큰 문제다. 보상 없는 물러남은 없을 듯하다.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이고 현실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일 듯싶다!!

서 좀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힘이 되네요. 시골 지역이라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이 안타깝네요. 모든 것들이 대형병원이나 대형 도시 위주로만 개 최되는 터라 아쉬움도 많아서, 이렇게 협보로나마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 **김경희 회원:** '세계 임상시험의 날', 임상시험의 날이 있던 걸 처음 알았어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등에서 임상실험자들 모집한다는 공고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실험에 참여, 또는 실험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기에 와닿지 않았던 터라 무심히 지나친 사항들이라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특히 비타민 C등의 효능에 대해서도 그러한 희생과 시험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한 인간 생명에 대한 연구들도 임상병리사의 한 몫임을 느끼며 우리들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등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좋았네요. 초보 병리사로서 이렇게 협회지를 통해

● **문영희 회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 의료계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장혜란 회원:** 일하면서 사실 뉴스를 볼 여력이 되지 않는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있을걸 보니 호흡 곤란해택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조금 알아갈 수 있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아닌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줬음 좋겠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인도 보건의료 봉사로 글로벌 나눔문화 확산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중기)은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과 함께 인도 지역에서 보건의료 봉사를 실시했다.

취약계층 약 4,000여명들에게 검진(진단검사 포함) 및 진료 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진행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진단검사 장비 및 시약, 검사용품 일체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약 1,050여명에게 혈당·신장기능·빈혈 등에 대한 총 6가지 검사를 실시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와 처방을 도왔다.

이번 보건의료 봉사에는 (재)씨젠의료재단의 검사 전문인력과 경희의료원 분야 별 의료진·학생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보건의료 봉사단은 인도 스리나 가 르· 카슈미르· 그레이터노이다 지역의 의료

(재)씨젠의료재단 천중기 이사장은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 선 보건의료 봉사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처방에는 올바른 검사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눔문화 확산에 있어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의 전문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이사장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검사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씨젠의료재단은 사회공헌을 재단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베트남·우즈베키스탄·필리핀·케냐 등 8개 국가에서 약 10,000명 이상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18년 들어서도 사회봉사 네트워크와 협업해 1월에만 베트남 지역에 총 3회, 2월 캄보디아, 3월 필리핀 지역에 보건의료 지원팀을 파견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필리핀·캄보디아·몽골 등 5개 국가에서 총 7회의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Perfect Quality
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